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기질 개선 박차

학교보건진흥원-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맑은 숨, 서울학교 만들기'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원장 박상근)은 9월 3일 오후 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서울형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맑은 숨, 서울학교 만들기' 포럼을 개최했다.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전문성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 공기질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통합적·실질적으로 학교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20년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이 만들어졌으며, 운영 기관으로 올해 4월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의 출범 배경은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춘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국내외 대기질 관리 방향도 통합관리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까지 고

려한 실내 공기질에 대한 환경보건학적 중요성과 통합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적극적 조치라 할 수 있다.

2020년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의 주요 목적과 예상 성과는 ▲학교 공기질 관련 정책 동향 및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공기질 관리 사업 분석을 통한 서울형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 도출과 ▲연구협력학교 운영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에 대한 협력적 환경교육모델 개발이다.

학교보건진흥원과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맑은 숨, 서울학교 만들기'이다.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이 5개월간 추진해온 연구사업의 결과로 도출된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발표하고, 학교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이다.

'맑은 숨, 서울학교 만들기'란 우리가 같은 공기를 공유하는 호

흡공동체임을 인식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도적으로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에 참여해 깨끗한 공기 속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서울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정책 비전을 말한다.

'맑은 숨, 서울학교 만들기' 포럼은 지원단의 주제 발표, 사례 발표, 현장 관계자·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원의 신진호 부장이 '서울시 실내의 공기질 통합관리 방향'에 대해, 평택대학교 김호연 교수(지원단장)가 '서울형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방향과 중장기 계획'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뒤이어 여러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 중심의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현장 참석자의 규모를 10인 내외로 제한해 현장 포럼과 웨비나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환영사와 황인구 서울시의원의 축사 등 영상으로 대체했고, 주제 발

표와 종합 토론은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참석자 간의 웨비나 과정을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 포럼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포럼에 참여했다.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학교보건진흥원은 학생 및 교직원 의견의 건장권을 보호·증진하는 기관으로서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 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같이 서울학교의 감염병 예방과 공기질 관리 등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학교환경보건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학교 환경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내·외부 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림동산 스터디카페'서 실력과 꿈 키운다!

광주교, 학생친화적 '스터디카페형' 열람실 조성

광주교등학교가 교정 정중앙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서관 인체중관(1층 진로상담실 및 도서관, 2·3층 열람실) 2·3층에 '스터디카페형' 열람실을 완공했다.

8월 30일 광주교에 따르면 이번 '스터디카페형' 열람실 조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고 학생들에게 학업 의지와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전체 교직원들의 바람에서 시작했다.

지난 3월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의 설계과정을 거쳤다. 기존 410석 규모의 열람실을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스터디카페 형태의 학생 친화적 학습공간으로 조성했다.

학교 내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학습 공간 조성을 통해 고교 학업에 시련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과도한 사교육 풀림 현상 예방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성된 열람실은 ▲268



석의 칸막이 지정석과 63석의 오픈 지정석 ▲스탠드형 책상(좁음 방지) ▲모뎀학습실 ▲정보검색실(과제 및 프로젝트 학습활동 가능) ▲40여 대의 테블릿 PC(인터넷 강의 활용) 및 충전 시스템 ▲마루 형태 계단형 공간(자유로이 독서·공부 가능) ▲빔 프로젝션 및 스크린 시설(수업·동아리 활동 가능) ▲은은한 간접 조명, 방음암막 커튼 및 친환경 커튼의 이중 커튼 설치(집중력 향상) ▲열교환 환기장치 설치 ▲무료 와이파이 환경 등의 그린스마트 교육환경을 갖춰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 또한 언제든지 다양한 학습·수업·연구·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

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교는 지난해 말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서관의 친환경 건물로 진로관(3학년동)을 리모델링했고, 지난 2월 구성원의 소통과 수업, 동아리활동, 상담 등을 위한 카페형 다목적실 '다락(多樂)'을 조성한 바 있다.

광주교 3학년 정호영 학생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큰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하루 빨리 안정돼 새로 꾸민 멋진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기재부 차관 "고용지원 확대·보완방안 신속 마련"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가족돌봄 휴가기간 확대 입법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고용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정책의 확대·보완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속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던 고용 상황이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월 이후 고용상황을 보면 취업자 수는 4월 -47만 6000명, 5월 -39만 2000명, 6월 -35만 2000명, 7월 -27만 7000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 재확산으로 흐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 차관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일자리 사업도 더욱 내실화하겠다"며 "아울러 고용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정책의 확대·보완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감소세로 전환한 관광·공연·외식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지난 8월 27일 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점포 재개장,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 대응 추진현황을 언급하며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시행에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8일간 수도권에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됐다"고 전제한 후 "음식점,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발표된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며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한 14만 3000명에 그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간출생아수는 2016년 40만 6000명 → 2017년 35만 8000명 → 2018년 32만 7000명 → 2019년 30만 3000명(상반기 15만 8000명) → 2020년 상반기 14만 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도성훈 교육감 "전교조 범의노조 통보 '위법'"

"대법판결에 환영... 공공성 강화 동반자 역할 기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범의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범의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범의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범의노조 통보 조

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하게 후속 판결이 이뤄져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앞으로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용섭 기자 ays@

사령
전북지사장 김인수
전북지사 취재국장 정우형
2020년 9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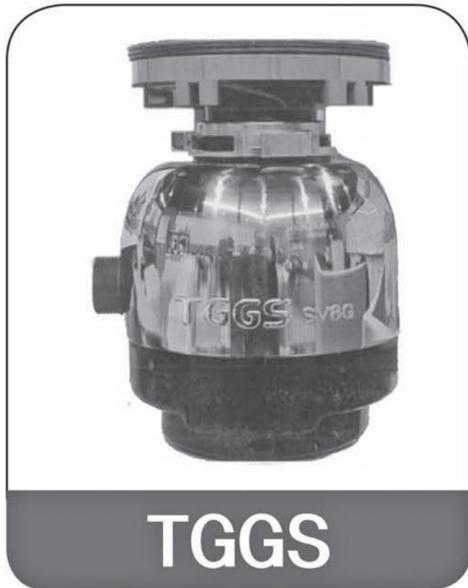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사장 한승균 발행인/편집인 김진아
우 135-9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30(청담동)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팩스 02-3444-0119
인원번호 032-429-1000 영남본부 054-273-3336 충남지사 1577-2036
미주본부 443-621-2625 경남지사 055-242-8921 경북지사 054-435-5600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72-909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음식물 분쇄처리기

TGGS·황금맷돌 라벤더·황금맷돌 프리미엄

·한국상수도협회·KC전기안전인증



36개월 무상보증

7일간 무료체험 +이전설치가능+



프리미엄



라벤더

편리한타입



리모콘 타입
리모콘은 사용하기에 편한 장소에 부착하시고 리모콘으로 작동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페달 타입
설거지 중에도 발로 페달을 밟으면 작동됩니다.

| 본사·공장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85, 301(호계리, 상보 B/D)
| 사업본부 : 인천시 서구 청라라임로 122번길 7, 1층 | 032-876-6905

조선대 “사교육 의존없이 입시준비 가능”

다각적 장학·취업지원 프로그램 눈길... 2021학년도 수시모집 9월 23일~28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74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대학교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표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조선대학교가 2021학년도 수시모집으로 3687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특히, 조선대는 13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번 수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주요 평가 자료로 활용해 '공교육 기반의 전형'을 설계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사교육의 의존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입시 준비가 가능하다. 이밖에 전공과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고교연계 프로그램 지원함으로써 고교교육 내실화에 앞장서고 있다. 2021학년도 조선대 수시모집은 9월 23일(9:00)부터 28일(18:00)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2021학년도 조선대학교 신입생 모집 어떻게?

2021학년도 조선대학교 수시모집은 전형유형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실적전형으로 구분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전체 모집인원의 47.7%에 해당하는 2,248명을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23.8%에 해당하는 1,122명을, 실기/실적전형은 317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일반전형)는 일괄합산(의예과 제외)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부 100%로 선발한다.

전 모집단위에서 학생부는 교과성적 90%와 출결 10%로 반영되며 사범대는 면접고사가 이뤄진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모집단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만학도전형/특성화고교전형/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는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의예과는 단계별 전형이 실시된다.



1단계는 학생부 100%로 진행되며 5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는 1단계 성적 95%에 면접 5%를 합산해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생부의 교과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도덕 포함), 과학 교과와 전 과목을 반영하며 교차지원이 허용된다. 교과성적은 학년별 별도의 반영비율 없이 1, 2, 3학년(재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100%로 반영된다.

학생부종합(일반전형/소프트웨어전형)은 단계별 선발이 되며,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4배수 선발이 이뤄진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인적성면접 3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면접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며 인적성면접으로 진행된다.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농어촌 학생전형/장애인 등 대상자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전형)은 일괄합산 방식을 통해 서류평가 100%로 진행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지역인재전형의 의·치의예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실기/실적 전형은 문예창작학과와 음악교육과, 미술체육대학(스포츠산업학과, K-컬처엔터테인먼트학과 제외)에서 진행되며, 전형 및 모집단위에 따라 반영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bhak.chosun.ac.kr>)를 방문해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 2021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변경

사항은?

조선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전형 명칭이 다른 경우 최대 3개의 전형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됐으며, 두 번째로, 의예과와 치의예과의 중복지원이 허용됐다. 또한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의예과의 전형방법이 일괄합산전형에서 단계별전형 2단계(5배수)로 변경됐으며, 면접면접 비율은 24.2%에서 5%로 변경됐다.

세 번째로, 학생부종합(일반전형) 면접배수가 4배수로 확대됐다.

- 신설학과로 4차산업혁명시대 전문 인재 양성

조선대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첨단분야 학과인 첨단에너지공학과와 인공지능공학과를 신설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공과대학 첨단에너지공학과는 현재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소, 지열, 풍력, 바이오, 폐기물)와 고부가가치의 미래 자원을 연구하는 학과다.

IT융합대학 인공지능공학과는 인공지능(AI) 집중교육을 통해 인공지능(AI) 창의융합형 인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인공지능(AI) 경제 효과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외국어 관련 학과 통합으로 2021학년도에 새롭게 탄생한 글로벌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화학과와 유럽언어문화학부도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언어학부는 아랍어 전공, 중국어문화학 전공, 철학 전공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럽언어문화학부는 독일어문화학과, 러시아어과, 스페인어과가 통합돼 유럽의 문학,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학부다.

- 조선대학교 '신입생 맞춤형 장학제도' 운영

조선대학교가 2019년부터 신설·확대하고 있는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장학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조선대학교는 지난해 '입학 장학금(입학우수장학금4)'을 신설해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 역시 입학금은 모두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그리고 2019년 신설된 '첫단추 장학금'은 2020년 '입학성적우수장학금3'로 이어져 수시·정시모집 최종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상위 10%인 신입생에 입학 첫 학기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도 '입학성적우수장학금3' 장학금은 계속 지급한다. 또한 지역대학 입학생 중 입학성적 우수자와 특성화영역 우수자를 선발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인재 장학금'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기당 생활비 3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동원 글로벌 트리머장학금'도 눈길을 끈다.

- 다각적이고 수준 높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조선대학교는 직무·기업별 취업 전문분야와 함께하는 다각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을 돕고 있다.

조선대 취업학생처가 최근 운영한 취업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사관학교'는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한데 묶은 프로그램이다. 국내 30대 대기업 채용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10년 넘게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온 조선대의 대표 취업지원 프로그램 'CU골드클럽'은 학생들의 취업 목표를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 등으로 나누고, 각 분야에 맞는 탄탄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조선대 대학일자리지원센터는 조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지금은 건강이 최우선”

상주초병설유치원, '줄넘기·홀라후프 대회' 실시

상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임종효)은 8월 26~27일 이틀에 걸쳐 만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앞마당과 꿈토실에서 건강 줄넘기·홀라후프 대회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늦은 5월부터 시작되었지만 금방 흥미를 가지고, 줄넘기와 홀라후프 돌리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건강 줄넘기·홀라후프 대회를 통해 균형 있는 신체 발달과 기초체력을 기르며, 급수제를 실시하여 유아들의 목표의식과 자신감 및 성취감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건강 줄넘기·홀라후프 대회 당일 유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참여했으며, 그동안 갖고 있던 줄넘기와 홀라후프 실력을 마음껏 뽐내었다.

한편 친구들의 줄넘기와 홀라후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응원하기도 하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에게는 큰 박수로 격려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날 줄넘기 대회에 참여한 유아는



“처음에는 1개도 못했는데 이제 많이 하게 되어서 기뻐요.”, “엄마에게 홀라후프 100개를 해서 1급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뿌듯한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상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학기에 도 유아들의 신체발달과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줄넘기·홀라후프를 바깥놀이 활동시간에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박지혜 기자 pjh@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상인들의 시장통 이야기'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지난달 31일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1권 '서울 상인들의 시장통 이야기'를 발간했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시민들에게 현대 서울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10권의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서울 상인들의 시장통 이야기'에서는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마장축산물시장,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꽃시장,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등지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의 구술을 채록, 정리해 서울의 주요 시장들이 변천해온 과정을 담고 있다.

본 구술 자료집에는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시장 운영 전반을 살핀 광명용, 남대문시장 수입상가 상인회 회장으로서는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박점봉, 광장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광장시장을 유지하고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힘써온 송호식, 서울시 공무원이었다가 마장축산물시장에 들어가 축산물유통업체의 대표로 자리잡은 이영연,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꽃시장의 형성과 성장을 모두 지켜본 최화섭과 오정민, 용산청과물시장 시절에

서부터 가락동 청과시장으로의 이전과 성장 등을 이끌어온 이강하, 최필남 등이 등장한다.

광명용과 박점봉은 전쟁 직후 남대문 시장이 다시금 서울의 대표적 시장으로 거듭났다가 불경기로 어려워진 최근의 상황까지 다사다난한 과정을 소상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박점봉은 전쟁 직후 남대문시장 주변을 떠돌던 녀마주이, 꿀꿀이죽을 팔던 모습 등 남대문시장의 다양한 옛 모습을 추억했다.

송호식은 수십 년간 제기된 시장재개발의 압력 속에서 버텼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광장시장은 그 자체로 역사이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함부로 허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축산물유통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이영연은 1970년대 마장동 가축시장이 전성기였던 시절 수도권에 목동들이 소를 이끄는 시장으로 모여들던 이야기부터 사업의 성공과 실패, 재기에 얽힌 경험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축산유통정책에 대한 솔직한 의견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김현구 기자 khg@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겠습니다

01 프린팅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의 판매
- 액상분필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실의 전산조달담당
- 프로젝트 및 영상기기, 음향 설비공사
- 전자질판, 문서세단기

03 불용품 처리 파트너의 역할

- 조달물품의 불용처리 일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말끔히 해결

불용컴퓨터 및 중고컴퓨터 전문 수거사업은 고객의 기존 정보누출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전산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의한 재활용 가능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21세기 환경산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폐자재의 수거율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선 폐자재에 대한 최대한 재활용화를 통해 부족한 나라의 자원을 절약하는데 미약하나마 힘이 되고자 합니다.

소통 통한 행복한 인천발명교육 실천 앞장

인천시교육청, 상반기 인천발명교육 워크숍...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발명 교육 운영 성과 공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성훈)은 2020년도 상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발명 교육 운영 성과 공유와 소통을 통한 슬기로운 인천발명교육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인천 송도오라카이 호텔에서 2020년 상반기 인천발명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2020학년도 발명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발명교육협의체 역량 강화 및 발명 교육 사업별 담당자 협의를 통한 발명 교육 내실을 꾀하는 자리였다.

인천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장 및 관내 발명 교육 관련 교육 전문직원으로 구성된 분과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발명 교육 활성화 방안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리고 발명교육중심학교 담당 교사로 구성된 분과에서는 2020년 COVID-19로 인한 온라인 발명 교육 내실화 방안, ㈜포스코건설, 조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연계해 진행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발명 교육 사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인천초등발명교육지원단 분과 협의에서는 교과연계 발명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제22회 인천과학대전 연계 발명 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한 사업을 구상했다. '미래 교육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박상민 연구소장은 서울형 메이커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과 실천 모습을 소개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자율성, 협력, 공유를 강화하고, 창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인천발명교육협

의체 의장인 임항빈(인천학익초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등 발명 교육 현장의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슬기롭고 용기 있게 극복해 주신 발명교육센터 교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김동호 과장은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발명교육센터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통해 국가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의 발명 학생들을 위한 내실 있는 발명 교육을 하반기에도 이어서 실천하기로 다짐했고,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2020년 하반기에 인천발명교육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호 기자 kth@



(사진제공=교육복지사 김영아)

함께 나누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명현중 가온누리 봉사단, 경로당 어르신께 수제 빵 전달

명현중학교(교장 박형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지난 8월 10일 가온누리 봉사단 10명의 학생과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 계양구지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함께 여름방학 맞아 '계양지역 경로당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학교 끝나고 신나게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가온누리 봉사단 학생들이 직접 빵을 만들어 방문함으로써 웃어뜰을 공경하고 1:3세대가 함께 나누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원들은 비와 함께 8월 4일 동아아파트 경로당(숙·흑미 마들렌), 8월 5일 현대1차아파트 경로당(낙엽 브레드), 8월 6일 현대2차아파트경로당(모카번), 8월 7일은 뉴서울2차아파트 경로당(에그베이컨빵), 8월 10일 중앙하이츠아파트경로당(쿠기 소보루)을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어르신 가정 방문에 안부 인사를 나누고, 학생들이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직접 만든 수제 빵을 전달하며 사랑과 정성

까지 같이 전달했다.

참여한 가온누리 봉사단 3학년 김희진 학생은 "직접 빵과 과자를 만드는 것도 뜻깊고 기억에 남는 체험인데 이 결과물이 어르신들에게 봉사로 쓰인다는 것에 더욱더 기쁘고 즐거웠다. 코로나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재능 나눔을 함께한 해피베이킹스 이정미 원장은 "이번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빵을 만들어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마음과 수업 참여도에 있어 의욕과 열정이 뛰어나 수업하는 내내 흐뭇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수업 중 방역과 위생을 최대한 신경 쓰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명현중학교 가온누리 교육복지실은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통해 가온누리 봉사단의 이름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라.'라는 뜻이 되도록 꾸준한 활동을 할 것이다.

최철호 기자 cch@

부흥교육공동체, 온라인 연수로 만나다

인천부흥초, '버추프로젝트 수업' 저자 권영애 강사 초빙 강연

인천부흥초등학교(교장 정영랑)는 지난 8월 19일 전 교사를 대상으로 버추프로젝트 수업의 저자인 권영애 강사를 초빙해 '부흥교육공동체 온라인 연수로 만나다'의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의 상황 속에서 인천부흥초 교사들은 장비나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연구하고,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왔다.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안을 찾아 보니 교사들 역시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학교와 교실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부흥초등학교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자존감과 효능감, 행복감이야말로 동료성 강화와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고, 교육력 강화가 실현돼 학생의 미래혁신역량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는 철학을 인천부흥교육

의 비전으로 정하고 '버추 프로젝트 구현으로 역량을 키워가는 행복한 부흥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버추프로젝트 1부 연수에서는 버추프로젝트 유래 및 보급현황, 인성교육관, 교실 적용 사례에 대해, 2부 연수에서는 버추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5가지 전략, 짝 토론 및 그룹 토론을 통한 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했던 이모 교사는 "코로나19 시대에 교실 공간에서 혼자만이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을 온라인 연수 시간을 통해 공유할 수 있어서 다들 즐겁고, 스스로 자존감 회복과 힐링의 시간이 됐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인천부흥초는 앞으로도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연구, 실천, 공유활동을 위한 다양한 연수 추진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넘어 학교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철호 기자 cch@

"기후·식량문제 해결 같이 고민을..."

인천경연초중-인천서구청, 에코 스마트팜 통합교육 모델개발 MOU

인천경연초중학교(교장 이현주)와 인천서구청(구청장 이재현)은 8월 19일 인천경연초중학교 경연관에서 에코 스마트팜 통합교육과정 모델개발을 위해 상호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경연초중학교와 인천서구청은 날로 심해지는 기후 문제 등의 환경문제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코스마트팜 통합교육과정 모델개발을 위해 상호 두 기관 간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현주 교장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방안 및 학교 교육과정 모델개발



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앞으로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철호 기자 cch@

한해 5만8천여명 사망 매년 1조7천억원 진료비 손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흡연폐해 심각성을 알리고 보험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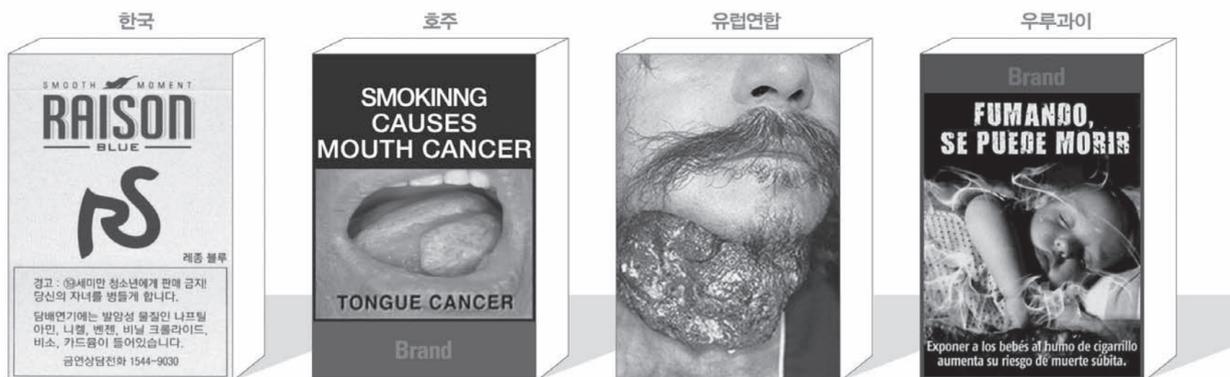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

-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
-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이 2.9배~6.5배 높음
- (여성흡연) 불임, 유산, 기형아 출산위험, 영유아 돌연사 위험 증가
- (청소년흡연) 담배 의존성과 질병사망 위험도가 더욱 증가
- (중독성 1위) 니코틴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보다 중독성 높음

OECD주요국 담배가격·흡연을 비교 출처: 보건복지부, EU담배규제위원회, OECD



각국담배 경고문구 비교



초록이 자라는 '인주중'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생태교실 '봄봄' 현판식

인주중학교(교장 윤건선)는 7월 27일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생태교실 '봄봄' 현판식을 진행했다.

생태 교실 '봄봄' 현판식은 텃밭 생태 교실 수업 공개, 초록이 자라는 생태 교실 '봄봄' 현판식, 텃밭 생태 교실 운영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강래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조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 류석형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김중기 인천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김미선 미추홀구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인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들이 참여해 큰 성황을 이뤘다.

텃밭 생태 교실 '봄봄'은 학생들이 자연과 식물의 순환, 소생과정에 대한 참여와 관찰을 통해 친환경 생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인주중학교는 이를 위해 먼저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해 텃밭 생태 교실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 내 학습공간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교내의 버려진 땅을 개척하고

친환경 생태 교육장인 텃밭 생태 교실을 만들으로써 확장된 의미의 교육 공간혁신을 이뤘다.

윤건선 교장은 "버려진 땅, 쓰레기장, 쓸모없던 공간이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텃밭을 많겠지만 저희는 이곳을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시 낭송, 음악 수업, 환경 토론 수업, 그림 그리기, 연극 활동 등 하늘을 보면서 수업하는 텃밭 교실로 만들었다."며 "이곳은 빗물을 받아 식물에 물을 주고 지렁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땅의 힘을 키우는 퇴비장을 만들어 자연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는 생태 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교의 생태 교실 '봄봄'은 학생 교육을 위해 학부모-교직원-마을주민-지역 유관기관-미추홀구청-남부교육지원청-시 교육청이 연계 지원해 만들어졌고,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 아이들이 친환경 교육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태호 기자 kth@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

교육행정 등 6개 직렬 170명 최종 선발... 임용시험 총 1285명 응시 7.1대의 1 경쟁률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4일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임용시험은 총 1,285명이 응시해 7.4대 1의 실 경쟁률을 보였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208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의 최종 합격 인원은 당초 선발계획 인원

인 173명보다 3명 적은 170명이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은 153명 모집에 152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직렬별 최종 합격 인원은 △전산 3명 △사서 8명 △보건 4명 △공업 2명 △시설 1명이다.

최종 합격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 107명(62.9%), 남자 63명(37.1%)이며, 연령 분포는 20대 119명(70.0%), 30대 40명(23.5%), 40대 이상 11명(6.5%)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에는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차원으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12명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교육행정 직렬 전체 채용인원의 6%(9명)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초과한 임용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넓히는 데 동참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은 신규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직 적응 및 직무 전문성 제고

를 위해 10월 중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임용 대기자들에게는 학교 등 교육기관 현장에서 실무수습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임용후보자들의 정식 임용은 직렬별 결원 등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명단 및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용정초, 행복한 마을 학교로 재탄생

인천미추홀구와 협약 예산 지원 받아 '학교 부설주차장 주민개방사업' 추진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90개교로 확대 운영 중이다.

2020년도 행복배움학교로 새롭게 선정된 인천용정초등학교(교장 이종숙)

는 인천미추홀구와의 협약을 통해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 1억 2천만 원과 5년간 인센티브 1억 5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해 공유주차장 문화 확산에 이

바지하고 있다. 또한, 가로등·CCTV 설치, 야간 개방 시간대 통합주차관제센터 상시 모니터링, 정기적인 자율방범대 순찰 및 즉각적인 출동 조치 등을 통해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에 온 마을이 나섰다. 한때 폐교 위기에 놓여 있던 학교가 지금은 다니고 싶은 학교, 마음을 나누는 마을 학교로 재탄생해 학생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병식 교육재정과장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도심 속 마을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kth@

나누면 더욱 행복해집니다

인천해원중, 학생들이 손수 만든 면 마스크 기부



인천해원중학교(교장 한희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학생들이 손수 면 마스크를 만들어 인천서구청을 통해 기부했다.

세계시민 교육의 하나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인천해원중 자율동아리 뛰이뛰이천뽕(국제화특구 선정 동아리, 학생대표 백서윤, 담당교사 이은진)학생들이 면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3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 안내 영상을 보면서 손수 마스크를 만들었다. 김미경 교사(3학년 부장) 외 13명의 교사와 학생 105명이 함께 기부 활동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 수업이 이뤄

지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으며 이에 없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려는 학교의 노력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불어 이뤄진 것이다.

이번 기부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힘든 상황일수록 나누면 더욱 행복해지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교사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것 같았던 학교 동아리 활동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펼치는 기회로 삼았다.

최철호 기자 cch@

인천하점초 "사랑의 우산이 왔어요"

본관·체육관 2곳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우산 비치

하점초등학교(교장 나인태)에서는 2020학년도 학생회장 공약사업의 하나로 사랑의 우산을 준비했다.

사랑의 우산은 학생들이 우산을 안 가져왔을 때 사용한 뒤 그 자리에 갖다 놓아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본관과 봉천관(체육관) 두 곳에 비치해 우산이 필요한 상황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점초 사랑의 우산은 1~6학년 학생들이 학급 회의 시간을 활용해 어떤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의견을 모았다. 사랑의 우산, 무대배경 바꾸기, 야외테이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학생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랑의 우산이었다. 사랑의 우산 사업으로 결정된 뒤에도 학생들 스스로 디자인을 골랐다. 사랑의 우산으로 적합한 우산을 구매하기 위해 5, 6학년 학생들은 가격, 실용성, 디자인 등 학생들이 기준을 마련해 몇 가지 우산을 골랐다. 그런 다음 스티커를 붙여 1~6학년 전교 학생의 의견을 모았다.

참여한 6학년 한상우 학생은 "우리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실제로 이뤄지니까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사랑의 우산 디자인도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해진 것이라 더욱 소중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소감을 밝혔다.

나인태 교장은 "학생들이 나, 너,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에서 나와 우리의 일을 상의해 결정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학교 안과 밖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자치활동을 더욱 확대해 민주 시민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철호 기자 cch@

우리는 언제나

HAPPY+ SCHOOL

김기택의 행복배움학교 생각

희망을 노래한다

"인생이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 are going to get,

책남부

“가상현실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미추홀구청청소년수련관, ‘생활과학놀이터’ 진행



미추홀구청청소년수련관(관장 김경미)에서는 7월 4일부터 25일까지 9~13세 청소년 18명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미디어문화놀이터 ‘생활과학놀이터’ 운영을 마쳤다.

‘생활과학놀이터’는 4차 산업과 관련해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체험하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활동은 총 4회기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의 안전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했다.

참가 청소년은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관심을 더욱더 가지게 됐고, 제일 인상 깊었던 활동은 VR 카드보드 만들 기이다. 평소 VR과 AR의 차이점을 잘 몰랐었는데 이번 체험으로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하게 돼 매우 흥미로웠다.” 라고 말했다.

한편, 4차산업혁명미디어문화놀이터는 ‘생활과학놀이터’를 시작으로 ‘3D 로드’, ‘미디어월드’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구청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태호 기자 kth@

언택트 사회 ‘위드 팬데믹’ 시대로 앞서간다

‘제19회 대한민국 독서토론포럼대회’ 쌍방향 원격대회로 성공적 개최

‘제19회 대한민국 독서토론포럼대회’ 본선이 8월 29일 쌍방향 원격대회로 개최됐다.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회장 임영규)이 학교 독서교육 정착과 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2002년에 시작한 이 대회는 매년 7월에 개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본선을 8월 말에 치르게 됐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각자의 자택, 학교 등의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독서 토론과 논술대회에 참가하는 양방향 원격대회로 개최됐다.

개인은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선을 거쳐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의 4개 학생 급별 각 10개 조로 구성해, 조별 10명 내외로 40개 조, 총 40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단체전은 지역별 예선을 거친 초중고 40개 학교, 120명의 학생이 지난 8월 22일(토) 결선대회에 참가했고, 초등 고학년 8교 중학 16교, 고교 16교가



토너먼트를 거쳐 결선대회를 마쳤다.

결승전은 적은 인원이므로 국회 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 인원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모임도 중단됨에 따라, 이 역시 쌍방향 원격대회로 진행했고, 심사위원들 역시 실시간 원격으로 토론의 대상 도서 활용력, 창의적 논제 해결력, 발표 및 태도 등을 중

합 평가했다.

매년 한 가지 대주제와 관련된 인문, 과학, 예술 진로 분야의 책을 읽고, 토론과 논술을 통해 인간의 삶과 사회현상 등으로 생각을 확장하는 이 대회의 올해 주제는 ‘기후변화’였다.

유튜브로 방영한 실시간 개최식에서는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권순서터타임즈 김경환 대표, 국회의원 송영길 외교통

일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권성동 의원 등이 축사했고, 박귀수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이사장과 주한규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실시간 원격으로 시행한 전국 단위 독서토론포럼대회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돼, 참가한 학생들은 “전국의 친구들을 모이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만나 아무 어려움 없이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도 신기했다.”, “이 대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 “매년 전국의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독서 토론과 논술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독서새물결모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등의 소감을 말했다.

이번 ‘제19회 대한민국 독서토론포럼대회’는 대한민국 국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전국 12개 시도교육청, 미래에셋생명,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EBS 독서리전센터 등이 후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문 활동으로 사회문제 해법 찾자

인천시교육청, ‘2020 청소년 인문실험 공모전’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인문 활동으로 사회문제의 해법과 삶의 행복을 찾도록 지원하는 ‘2020 청소년 인문실험 공모전’을 운영한다.

‘2020 청소년 인문실험 공모전’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의 정책 제안으로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지난 8월 인문실험 동아리 30개 팀을 모집했으며 12월까지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는 ‘생활인문실험’과 ‘사회변화실험’ 분야로 나뉘어 실시한다.

‘생활인문실험’에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획을 공모했다. △책 처방전을 통한 친구와의 소통 △청소년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탐구 △지역사회 어르신과의 소통을 위한 인생 출판 △우리 동네 문학지도 만들기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인천지역

관광콘텐츠 제작 등이 진행된다.

‘사회변화실험’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 기획을 공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다문화가정과 소통을 위한 독서 멘토링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 실험 등이 진행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선정된 인문실험 동아리 30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9일 ‘2020 청소년 인문실험 캠프’를 공식 유튜브 채널로 진행해 학생·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인문적 상상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삶에 대해 성찰해 보고,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나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하나금융티아이, 인천 인재 육성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아이리더’ 후원 동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신정원)는 지난 8월 12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하나금융티아이(대표이사 유시완)를 방문해 인천아이리더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인천 아이리더’ 사업은 학업 및 예체능 분야에 재능은 있으나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꿈을 발휘하기 어려운 인천의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인재양성 지원 사업으로 올해 2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기호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우수 사례로 받은 상품권 200만 원은 아이리더 1기 아동 중 서구, 계양구 아동 10명에게 2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고, 아이리더 2기 아동 중 계양구에 사는 학업 우수아동과 결연을 하고 매일



하나금융티아이 유시완 대표(좌) 어린이재단 신정원 인천지역본부장(우)

50만 원씩 후원한다.

전달식에 참여한 유시완 대표이사는 “인천 지역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후원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사회 인재를 키우는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도성훈 교육감 “온라인 수업 등 원격수업 내실화 만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당초 9월 11일까지로 예정된 고3을 제외한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원격수업을 9월 20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원격수업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하게 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돼 더 이상의 원격수업 연장이 없기를 바랐는데 안타깝다”면서 “당분간 원격수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여건을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등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용섭 기자 ays@

365일 바이러스 청정지역 천연항균·탈취제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
향균·탈취
99.9% 제어

Dr.SPACЕ

닥터스페이스

S2B물품번호: 202004300664379
S2B물품번호: 202004300664376
문의: 010-5204-8271

충남 학교 영화창작동아리 교육 지원 강화

충남도교육청,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2학기 원격수업 지원... 중·고교 54과목 2,401개 콘텐츠 보급

충남교육청-청운대학교,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충남 학생단편영화제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1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청운대학교(총장 이우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예술 전문 지도인력 정보를 공유하고, 영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활용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서 적극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충남학생문학상, 충남학생연극축제 등을 시행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학교 영화창작동아리 지원을 토대로 제1회 충남학생단편영화제를 실시했다.

올해는 43개 학교 영화창작동아리를 지원하며 오는 11월 두 번째 영화제를



준비 중이다.

충남학생단편영화제는 출판 작품의 경쟁보다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협업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제작 멘토링 체계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형 영화 촬영 스튜디오와 영상편집실 등을

구비하고 전문지도인력을 보유한 청운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충남학생단편영화제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운대 이우종 총장은 “청운대는 방송특성화 사업에 선정됐던 곳으로 방송 및 영화예술에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영화창작동아리 창작지원, 충남학생단편영화제 등 앞으로 충남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 창의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내실화로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문형 기자 lmh@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에 대비한 후속 조치로 ‘원격수업 지원팀’이 본격 가동되어 2학기 중등수업을 지원할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온라인 콘텐츠는 교과별·학년별로 각각 개발되어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중학교는 실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선정하여 36개 교과와 1,481개 콘텐츠가, 고등학교는 18개 교과와 920개 콘텐츠가 개발되어 학교에서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과제 제시 등의 방법으로 2학기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교과별 콘텐츠 개발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학교 82명, 고등학교 51명의 교사가 원격수업 지원단으로 참여하였다. 개발된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재가공, 편집, 수정 등을 거쳐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에듀스 충남 플랫폼 중등원격수업 자료실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학교지원단 한흥덕 과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전면적인 원격수업 전환에 대비함과 동시에 학습결손 및 학력 격차를 해소할 방법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문형 기자 lmh@

가칭 ‘천안청당2, 천안성성2’ 초등학교 신설

2023년 3월 개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학교 신설 통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월 28일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이하 중투심사) 결과, 천안시에 초등학교 2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31일 확정·통보받았다. 2개 학교는 2023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천안성성2 초등학교(가칭)는 2019년 9월 중투심사에서 ‘설립시기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이번 중투심사에서 신설 확정되었다.

천안청당2 초등학교(가칭)는 2019년 12월, 2020년 4월 두 번에 걸친 중투심사에서 각각 ‘학교위치 재검토’와 ‘계획안 반려’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통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천안시와 협의로 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중투심사에서 학교 설립 확정을 이끌어냈다.

황인명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학교 신설은 적정규모와 최적의 교육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문형 기자 lmh@

신설학교는 성성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천안성성 초등학교의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성지구 공동주택은 2023년 입주 완료 예정이다.

이문형 기자 lmh@

대전교육청, 찾아가는 교육급여 컨설팅

초 4개교·중 2개교·고 6개교 등 총 12개교 선정 현장방문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비 및 교육급여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단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방과후학교 운영 등 선정기준에 따라 12개교(초 4개교, 중 2개교, 고 6개교)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비 및 교육급여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단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방과후학교 운영 등 선정기준에 따라 12개교(초 4개교, 중 2개교, 고 6개교)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학교를 최소화하고, 현장 준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나이스, 에듀파인 등 정보시스템으로 사전 점검하여 학교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자 선정과 지원절차 준수 여부,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지원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문형 기자 lmh@

천안가온초, 녹색어머니회와 안전한 등굣길 앞장

청수파출소도 학생 안전 적극 협력... 엠뉴스서 활동모습 촬영

천안가온초등학교(교장 송도영)에 4일 오전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도와주는 녹색어머니회의 활동모습을 엠뉴스에서 촬영했다.

천안가온초의 녹색어머니 활동은 코로나19와 긴 장마, 태풍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동남경찰서 소속 청수파출소장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에 위해 도움을 준 덕분에 그동안 천안가온초 학생들은 안전하게 등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미디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엠뉴스에서는 교통지도를 모범적으로 해주시는 천안가온초 녹색어머니회 활동모습을 촬영하려 나왔다. 이 학교에서는 힘든시기에도 열심히 봉사해주는 녹색어머니회에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는 계기가 됐다.

이문형 기자 lmh@

대전도마중, 코로나19 심리건강 지키기 캠페인

대전도마중학교(교장 김명남)는 3일 코로나-19로 심리적으로 지쳤을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코로나-19 심리건강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래상담동아리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학생들을 위해 제작한 보드를 들고 ‘마음건강키트’를 나누어 주며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마음건강키트”는 또래상담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쓴 엽서, 심리건강 자가진단 검사지, 마스크, 마스크 목걸이, 손소독제, 향균물티슈, 초코파이 등 몸과 마음을 건강히 지킬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되었다.

캠페인을 계획한 김용범 상담선생은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번 캠페인을 계획했다.”라고 말했으며, 3학년 김모 학생은 “거리 두기로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해 아쉬웠는데 선물을 받아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학년별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9월 11일 1학년, 9월 14일 2학년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문형 기자 lmh@

영재교육도 언택트 시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원격수업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산하 대전서부글로벌영재교육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침 강화에 따라 9월 5일부터 영재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부글로벌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은 화상회의 앱(ZOOM)을 활용하여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또한, 원격수업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26-28일 지도교사 및 학생들에게 ZOOM을 활용한 원격수업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고,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정비하여 ZOOM 구동 가능한 기기가 없는 학생에게 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9월 1-4일 탐구학습꾸러미를 드라이브 스루로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탐구 중심의 영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코로나19의 대응 지침 강화에 맞춰 영재교육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멈추지 않는 영재교육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문형 기자 lmh@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코로나19의 대응 지침 강화에 맞춰 영재교육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멈추지 않는 영재교육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문형 기자 lmh@

SAMSUNG 삼성해상화재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한쪽으로만 오는 바람은 이제 그만!!!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장소에서 확산을 통한 고른 냉난방 효과 발생

Before

winfan 장착 전

직바람으로
한정된 공간만 냉·난방

After

winfan 장착 후

사방으로 바람을 확산시켜
고른 냉·난방

제품 특징

- 경쟁제품 대비 적은 부품수 (빠른 조립이 가능하고, 고장이 적다.)
- 날개이탈 및 날개각도 변형이 없다 (튼튼한 부품 및 내구성 강한 제품구조)
- 바람각 제어장치를 통한 바람각 조절가능

구매품격: ₩137,500 (VAT포함)
설치비: ₩15,000 (VAT포함)

전기로
20%
년

겨울철 실내온도 2도 ↑
여름철 실내온도 2도 ↓

신나파 [SONATA] 고객센터 : 070-4166-3516 팩스 : 053-383-5018 E-mail : modus1223@naver.com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 [학교장터] S2B 물품번호 201905198933179 무동력 윈팬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학교 만들기

[중국어 특성화교실 프로그램]

(S2B 물품번호 201903158708607)



EBS생생말들중국어
교재 20세트

1세트 구성 : 교재 12권 + CD 12장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1세트
(영상콘텐츠 + 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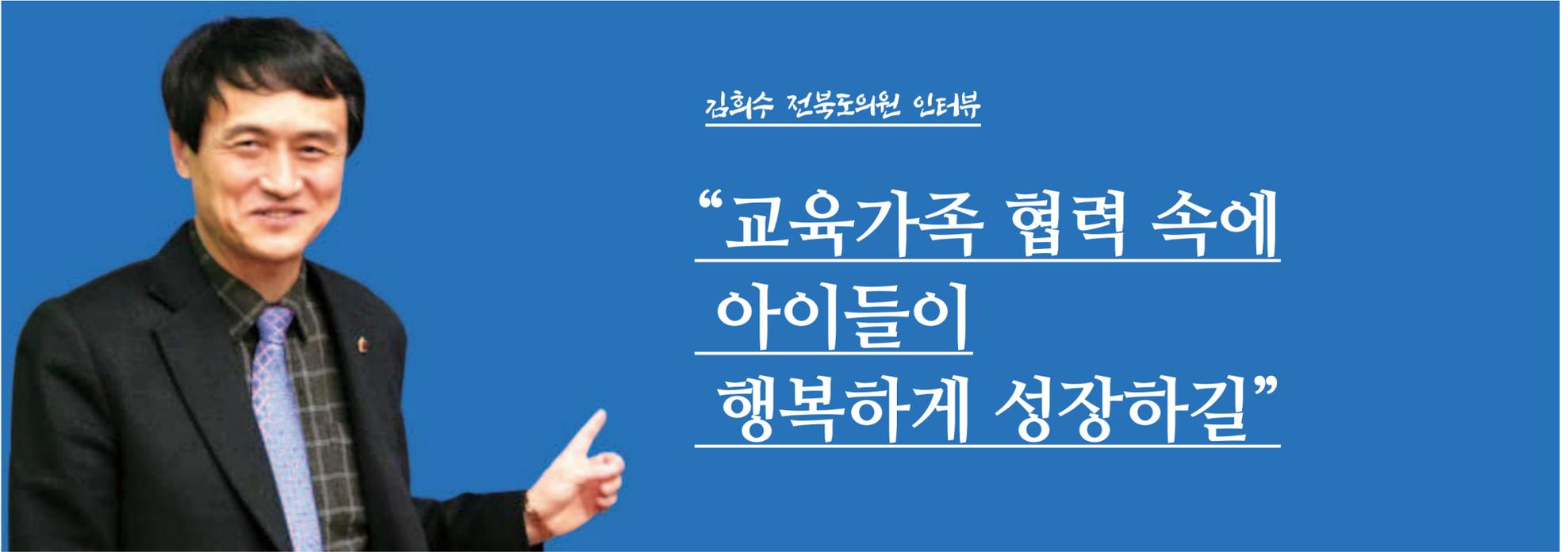
1테라 용량의 외장하드에 모두 탑재



중국어 전자책(e-book)
20copy

8기가 USB에 탑재

교육연합신문과 중국 국영언론 **흑룡강신문사**가
“중국어 특성화교실” 구축 학교에
2,000만원 상당의 교육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인터뷰

“교육가족 협력 속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길”



김희수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 ◇ 전주대학교·전북대학교행정대학원 수료
- ◇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 ◇ (유)전라안전공사·(주)춘광산업개발 대표
- ◇ (사)사람과 숲 이사
- ◇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운영위원
- ◇ 전라북도 양궁협회 부회장(전)
- ◇ 前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지역 학습 여건 개선 속에
포스트 코로나 준비
교사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교육자의 날’ 제정 필요



대구 신천지교회등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사태가 진정되어갈 무렵 또다시 전국을 강타한 서울 사람제일교회등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2차 팬데믹 공포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방역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전라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장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 6선거구)을 만나보았다.

김희수 의원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참정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찾아가는 복지정책’, 그리고 민생과 현안을 챙기는 ‘봄사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간단하게 의원 본인 소개를 해달라.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유)전라안전공사 대표와 (주)춘광산업개발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다. 또한 (사)사람과숲의 이사과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운영위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30

졌다.

전북도의회로서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안과 특별히 애착이 가는 조례안이 있다면?

지금까지 총 26개의 조례와 6개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로서 도민을 위해 발의한 모든 조례안이 기억에 남고 애착이 간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2018년 8월에 발의한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20년 1월에 발의한 ‘스승의 날 폐지 및 교육자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이 그것이다.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골자로 하는 조례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이런 제도적 기반으로 학생

어갈 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북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전라북도의 교육 여건은 미비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육정보연구원은 현재 초등 6학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SW교육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에 파견교사를 보내고 있으나 담당 교사는 지난해보다 2명이 늘어난 4명에 불과해 도내 초등학교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파견교사가 나가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의 경우 정식 수업이 17차에 걸쳐 이뤄져야 하지만 3차 교육에 그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업 가능한 교사가 한 학교당 최소한 1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교사들의 SW 교육연수를 체계화·의무화해 자체적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 방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



여 년간 꾸준히 사회활동과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는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던 중 2014년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2018년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의회에 입성하게 되어 현재는 제11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무엇인지 계획을 밝혀달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현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다. 예방과 방역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개선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또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모든 곳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도록 우리 지역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

을 위한 교육사업에 모두가 협력해 행복한 아이들이 있는 전북교육을 희망한다.

‘스승의 날 폐지 및 교육자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의미가 퇴색해 유명무실한 스승의 날을 없애고, 교사들이 하루정도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교사의 날’을 만들자는 취지의 건의안이다.

지금의 스승의 날은 학생·학부모가 교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받는 것이 자칫 법에 저촉될까 마음 편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의 날’처럼 ‘교육자의 날’이 있다면, 교사들이 하루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전북교육을 진단해 달라.

앞으로의 교육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을 반영한 학생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

한 성과라면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 의지가 적극 반영된 청렴한 전북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축해주길 기대한다.

다만, 아쉬운 점을 밝히자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길 바란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확대하는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교육이 더는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매우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는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지 등을 살펴 볼 계획이다. 아울러 도의회의와 소통뿐만 아니라 도청과의 소통의 유연성과 교육주체의 혼란을 막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향후 교육청의 정무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전북교육청과 유연하게 교류하고 화합해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고교생 온라인 전공 체험

원격수업 사례 나누는 현직교사 9명의 수업 나눔 토크

호남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유혜숙)가 9월 2일 건학관 건강 사정실습실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간호학과 호남대학교'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전공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간호학과 교수진과 학생회가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교수진과 학과 소개, 학과 교육의 특성, 온라인 실습실 체험, 재학생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 면접 안내를 진행했다.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통해 건강 사정 실습실, 기본간호학 실습실, 여성, 아동, 성인 시뮬레이션 실습실 등 학과에 마련된 실습실을 소개하고, 재학생들이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을 진행해 입시 면접에 대한 정보 등 간호학과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도왔다.

전공 체험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온라인 전공 체험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 호남대학교 간호학과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광주광역시교육청 '그웨이! 대세는 블렌디드!' 1~3편 제작 유튜브 채널 '딩동댕 연수마당'에 공개... 어려움 극복 도모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중심의 수업 운영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평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웨이! 대세는 블렌디드!' 영상 1~3편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딩동댕 연수마당'에 공개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원격수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수업 나눔 영상 '그웨이! 대세는 블렌디드!'는 원격·등교 병행수업에서 학생의 배움과 상호작용이 살아있는 수업을 운영해 온 9명의 현직 교사들이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1학기 원격수업에서 겪은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토크 형식으로 담았고 ▲통 통 통하다 ▲툴 툴, Tool로 통하다 ▲생으로 만나 는 실시간 수업 등 세 편으로 구

성했다. 1편 '통 통 통하다'는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이 소통하며 배움을 만들어가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원격수업 사례를 담고 있다. 구글 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 게임으로 집중하는 영어 수업, 1인극 영상을 만드는 국어 연극 수업 등을 통해 원격수업에서도 등교수업처럼 전체 학생들과 공감·소통하며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2편 '툴 툴, Tool로 통하다'는 모둠활동 중 다양한 원격수업 도구를 활용한 협업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패들렛'을 활용한 국어 글쓰기 수업, 가상실험 과학 수업, 밴드·카톡·플랫폼으로 소통하는 영어 수업 등 다양한 원격수업 도구를 활용한 사례를 제시한다. 토크에 참여한 교사들은 화려한 원격수업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업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3편 '생으로 만나는 실시간 수업'은 등교수업과 다르지 않은 쌍방향 실시간 수업 사례를 담고 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수업·평가 일체화 수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화 수업, 이미지를 활용해 시를 쓰는 사회 수업 등을 통해 학생과 피드백이 잘 이뤄진 원격수업의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번 영상 제작에 참여한 한 교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했지만 원격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며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원격수업 도구 사용법을 익혔고, 원격수업 도구를 사용해 학생과 소통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미래교육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고 밝혔다. '그웨이! 대세는 블렌디드!' 영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딩동댕 연수마당'(링크 주소: <https://youtu.be/FkiWz9uvviY>)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면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원격수업 사례를 경험하길 원하는 광주교원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원격수업 연수를 오는 15·17일 이틀 동안 2시간씩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업무 담당자는 "미래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아날로그와 디

지털을 블렌디드(혼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며 "2학기에 도 원격·등교 병행수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웨이! 대세는 블렌디드!' 수업 나눔 영상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수업 방식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www.kihs.re.kr

KIHS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Korea Institute of Hydrological Survey

홍수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조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함께 합니다.

수자원조사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수문조사 기기 검정 수자원 연구개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협력팀' 신설

미래세대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대전환 계기 마련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로 시민참여담당관에 기후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후환경협력팀'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환경협력팀' 신설은 6월 3일 광주교육시민참여단과 광주시교육청·광주시의회가 공동주관한 '기후위기 대응 환경정책 토론회' 개최로 시작됐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이번 팀을 신설했다.

'기후환경협력팀'은 ▲초·중·고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적 전환 모색 ▲학교를 환경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실현 가능한 환경교육 전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적·윤리적 경제교육과 학교협동조합 운영 ▲학교 햇빛발전소 건립 추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으로 미래의 생태시민을 양성해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기후환경협력팀'은 '광주교육 시민참여단'에서 제안한 권고안 및 '시교육청 기후위기대응TF' 권고안을 바탕으로 향후 학교 환

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팀 규모는 장학사 2명, 주무관 2명이고, 시민참여담당관은 시민참여팀, 기후환경협력팀, 지역사회협력팀, 학부모참여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교육생태계의 핵심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스타트

유노윤호, 광주고 '미르 밴드' 소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해 끼와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한다. 특히 스타발굴단 학생들과 광주 출신 스타 연예인을 연결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시작은 '동방신기' 출신 광주 지역 대표 연예인 유노윤호와 열정으로 뭉친 광주고 학생 밴드 '미르'다.

8월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유튜브 콘텐츠는 광주 지역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고 재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교육청이 발굴해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에서 소개할 첫 번째 학생들은 광주고 '미르 밴드'에서 음악적 열정과 재능을 보여 주고 있는 3학년 주권능(드럼)·이호진(일렉기타), 2학년 정강우(보컬)·김호건(베이스), 1학년 최광(키보드)·박은찬(일렉기타) 학생이다. 특히 많은 인기와 바른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

는 광주 출신 연예인 유노윤호가 음악적 열정이 풍부한 '미르 밴드'의 소식을 듣고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광주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광주고 '미르 밴드'와 유노윤호가 참여해 제작된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첫 편을 오는 9월 2일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한두석 공보담당관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세상에 자신의 끼와 능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재능 있는 우리 광주 지역 학생들을 발굴하고,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에 소개해 학생들이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광주대, 간호학 학사학위프로그램 인증획득

간호 분야 인재 양성 요람

광주대학교 간호학과가 한국 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20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오는 12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2020 간호대학 실습교

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주대는, 이번 학사학위프로그램 인증획득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간호 분야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학과개설 11주년을 맞는 광주대 간호학과는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최고 수준의 간호실습시설, 교수진을 갖추며 2020년 졸업생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기호 기자 2580news@daum.net

장석웅 교육감 “전남형 초·중통합학교 만들겠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 2022년 20개 교 운영 목표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사진)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합학교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남형 초·중통합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1일 오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9월 월례회의에서 “전남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멀리 헤아려 대비하지 않으면 가까워서 걱정이 생긴다(人無遠慮 必有近憂)는 공자의 말을 빌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전남의 소규모 학교들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동안에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교 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설개선, 또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20년 전 도내 11

개의 초·중, 중·중 통합학교가 만들어졌지만, 이는 물리적 통합에 불과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에듀테크의 산실로 육성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가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 교사들이 초·중 학교를 넘나들며 교육과정을 연계해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초·중 통합학교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고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청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남의 작은 학교들은 매력적인 유학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초·중등 자격증 구분에 의한 교원 배치의 한계, 복수자격 교원의 겸임 기피,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미비 등이 통합학교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

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2021년 1학기에 초·중 통합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9월 1일자로 20개 학교를 지정해 준비한 뒤 2022년 3월 1일자로 본격 운영에 들어가, 성과를 보며 그 수를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초·중 통합학교 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9월 1일자 교원 인사와 관련해 “향후 인사에서 지난 3월 출범한 도교육청 인사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혁신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지정학교 학교장 임용제, 학교장 경영실적 평정제 등을 도입해 점수 위주 서열화된 교장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전문직도 발탁인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전남 정남진산업고 윤정현 교사 ‘글로벌교사상 파이널 10인’ 선정

세계적 권위 ‘교육 노벨상’ 140개국 1만 2,000여 명 지원

전라남도 장흥 정남진산업고등학교 윤정현 교사가 2020년 ‘글로벌교사상’ 파이널리스트 10인에 선정됐다.



기술자격증 취득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중시한 윤 교사는 학생들과 나눔봉사활동 동아리를 조직해 지역 양로시설

1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윤정현 교사는 지난 3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글로벌교사상 파이널리스트 50인에 오른 데 이어 마지막 10인에 선정된 것이다.

글로벌교사상 선정위원회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파이널리스트 10인을 대상으로 9월 첫 주부터 한 명씩 차례로 세계의 언론에 그 공적을 공개하며, 12월 3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5년 제정돼 6회째를 맞은 ‘글로벌교사상’은 교육계의 ‘노벨상’이라 불리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타르 등에서 55개의 학교를 운영

하는 ‘글로벌 에듀케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스(GEMS)’ 그룹 산하 바키 재단이 제정한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100만달러(약 12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도 전 세계 140여 개국 1만 2,000여 명의 교사들이 지원했다.

최종 10인에 선정된 윤정현 교사는 28년 교직생활 중 27년을 장흥, 보성 등 농어촌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농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지게차, 굴삭기, 컴퓨터 등 제자들의 국

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기술 봉사활동도 펼쳤다. 이런 노력의 결과 윤 교사가 지도한 학생 4명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으며, 6차례나 전국 고등학교 최다 자격증 취득 성과를 거뒀다. 인성 측면에서도 전국중고생 봉사대회와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등 11개의 장관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 교사 개인도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 모범공무원상, 올해의 스승상, 오리 이원익 청백리 대상, 각종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장흥 정남진산업고등학교 정귀권 교장은 “윤정현 선생님이 최종 글로벌교사상을 수상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원력수업과 학교방역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마을활동가 풀벌레 소리 들으며 늦은 밤까지 열공!

영암교육지원청 함께 성장하는 마을학교 네트워크 정기 협의회 개최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이 9월 1일 관내 희문화장작공간 마을학교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마을학교 네트워크 정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 협의회는 2021년을 준비하는 씨앗마을학교 양성 방향을 협의하고, 영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또 주제 토론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2학기 마을학교 운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마을학교와 관련해 2021년 목표를 2읍 9면 1마을학교 개설로 설정하고, 영암의 모든 읍, 면에서 학생들이 공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씨앗마을학교를 공모·발굴해 중심마을학교와 함께 학부모, 마을활동가, 마을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마을학교 대표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과 영암청 공모사업을 통해 6개의 씨앗마을학교를 양성할 예정이다.

김성애 교육장은 “영암군과 협력해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행진력을 모아야 한다”면서 “우리청에서도 교원을 대상으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회의 및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조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함께 만들어가는 영암교육행복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마을학교와 관련해 2021년 목표를 2읍 9면 1마을학교 개설로 설정하고, 영암의 모든 읍, 면에서 학생들이 공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씨앗마을학교를 공모·발굴해 중심마을학교와 함께 학부모, 마을활동가, 마을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마을학교 대표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과 영암청 공모사업을 통해 6개의 씨앗마을학교를 양성할 예정이다.

영암군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 7. 2. 시행돼, 민·관·학 거

버너스 구축의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영암군청, 영암교육지원청, 영암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거버너스를 구축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연계해 지역교육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마음을 모았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중심마을학교와 5개 마을학교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의 수업 방향이 등교수업,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때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순천대, 보직자 40명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순천대학교가 지난달 27일 산학협력관 파우치에서 대학 보직 교수 및 과장 4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성폭력 예방 교육은 여성가족부 소속 통합 강사인 김미화 광주여성인권상담소장을 초청해 진행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례와 해당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캠퍼스 내 성폭력 예방법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내용으로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보직자들은 학생 지도 및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좌석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등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우리 대학은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성평등 관점에 기반을 둔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직자 및 대학 구성원들이 성폭력예방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을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보성교육, 청림의 길을 묻다”

보성교육지원청, The 밝은 미래를위한 찾아가는 청림 컨설팅

전라남도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이 9월 2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림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청림 컨설팅을 실시했다.

아울러, 청림컨설팅단은 소신 있는 업무처리를 당부하고 잘못된 공직문화 개선에도 목소리를 낼 것을 권장하는 한편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청렴 저해 요인 및 업무상 애로사항을 청취 등 관내 교직원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직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청렴 마인드 함양과 함께 자체 자정능력 강화에 앞장섰다.

이번 컨설팅은 보성교육지원청 주관 청림 컨설팅으로 종합감사 수감기관 및 컨설팅 신청학교에 방문해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해소방안 등 청렴의식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감사반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림컨설팅단은 부패취약 분야 업무담당자에게 청렴도 수준측정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부패 취약 업무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고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제공했다.

박복병 행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교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관내 교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하고 신뢰받는 혁신보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만철 기자 2580news@daum.net



2018년 최고의 쌀로 선정된

전남 10대 브랜드쌀

대상



한눈에반한쌀

해남육천농협

최우수상



대순맑은쌀

담양금성농협

우수상



나비쌀

함평군농협

우수상



황토랑쌀

무안군농협

우수상



수호천사건강미

고흥중앙농협

장려상



프리미엄홍평

강진군농협

장려상



세계제이사는진

영광군농협

장려상



녹차미인쌀

보성군농협

장려상



달마지쌀골드

영암군농협

장려상



갯벌에여운쌀

북신안농협

맛있는 전남쌀을

남도장터 www.jnmall.kr

에서 구입하세요



전라남도
JeollaNamdo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로 전달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에 대해 성명서 내고 입장 밝혀

지난 2013년 정부가 해직 교원이 가 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통보한 법 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 기환송한 9월 3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해 고용노동부가 4일 오후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기성천외 의 처분을 받고서 또다시 인고의 세월 을 겪어야 했고, 지도부를 이끌던 많은 교원들이 직면했던 처분을 당했다. 이는

1989년에 전교조 결성운동에 참여한 1 천5백여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직 등 중징계에 이어, 전교조에 가해진 또 하 나의 국가폭력이었다.”라고 그간의 소 회를 드러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 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 고, 이를 알리기 위한 행동을 지속해 왔 다. ILO(국제노동기구)도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에 그것을 시정할 것과 비준 을 유보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을 조속

히 비준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우리가 기다 리고 기다리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이 므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오늘 2020년 9월 3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 호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한 사법 여명의 날이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 한 대법원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라 고 밝혔다.

정우형 기자 jwh@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출범

교육복지 개선 기본방향...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범위 확대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제1회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개 최했다.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학부모·주민의 교육복 지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일반 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 회 구성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한 것 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당연직 3명, 전북도청과 기 초자치단체 공무원 위원 5명, 도의 회 추천 위원 3명, 공개모집 위원 11 명, 외부위원 18명 등 총 40명 이다. 임기는 오는 2022년 8월 31일 까지 2년 간이다.

이날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임원 진 선출,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 결과 및 운영 계획 설명 등으로 진행 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2m 이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켜서 책상 배치를 하고, 위촉장은 대표자 1인에게만 수여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했다.

앞으로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전 북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의제를 발 굴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 영될 예정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거버넌스위 원회가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상 호 협력적 관계 형성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창구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 한다”면서 “전북교육청과 교육감도 위원회의 제안에 귀 기울이면서, 도 민들이 더 높은 교육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 다”고 말했다.

정우형 기자 jwh@

군산문화초 “의료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전교생 및 전 교직원 참여하는 코로나 현장 의료진에 감사편지쓰기 진행

군산문화초등학교(교장 신현수)는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의료진을 위해 전교생 및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감사편지쓰기'를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 중점 학교로 지정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펼 치고 있는 군산문화초등학교는 코로나 19로 인해 고생하시는 의료진을 위한 '감사편지쓰기'를 진행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 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복지우선지원원은 교육취약 아동· 청소년의 교육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 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 기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합지 원체제 구축 사업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 공동체 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그중 에서도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마주하 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

하고자 8월 25일부터 등교하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감사편지쓰기'를 진행하 였으며, 작은 엽서나 예쁜 편지에 고 사리 같은 손으로 감사의 글을 쓰는 활 동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는 마 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240여명의 학생들과 40여 명의 교직 원들이 쓴 '감사편지'는 8월 28일과 31 일 오후 학생대표와 선생님들이 군산 시보건소와 군산의료원에서 고생하시 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정우형 기자 jwh@

편지와 더불어 직접 만든 희망약, 용기 약, 사랑약, 위로약, 행복약 등을 만들어 함께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편지에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 응원하 겠습니다' 등 격려의 내용을 적었으며, 의료진들에게 전달할 맛있는 약을 만 들면서 매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신현수 교장은 “코로나로 힘든 의료 진을 위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준비 한 '감사편지'가 작으나마 힘이 되고 용 기를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라고 말하며 함께한 학생들과 교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우형 기자 jwh@

전북교육청, 하도급대금·임금체불 실태점검

추석 명절 대비 영세업체 등 경제적 어려움 예방 차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임금체불 방지 등 지역 노동자 및 영세업체의 경제적 어려움 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기간은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으로 점검 대상은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10 개 건설공사 현장으로 학교·유치원 신 (증)축 공사 현장 4곳(혁신유치원, 미성 유치원, 양현유치원, 세내유치원), 직속 기관(전북교육연수원, 대안교육지원센 터,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 원, 군산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 관) 등 기타 공사 6곳이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등과 같은 하도급대금 체불 현황과 임 금(노무비) 체불 현황으로, 지난 2019 년 6월 19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 사는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마련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조기 정 착을 위한 시스템사용 실태 파악도 병 행한다. 점검 방법은 도교육청 재무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류 검토 등의 사 전점검을 마친 후에, 시설과 건설현장 담당공무원이 사업장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 해 지역경기가 둔화된 상태에서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영세업체 안정과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정우형 기자 jwh@



학생·선생님 더 가까워지는 시간

고창 아산중, 사제동행 목공체험 실시

아산중학교(교장 문병원)에서는 지 난 8월 31일 방학 중에도 선생님들 과 전교생이 목공체험을 하기 위해 심 원면으로 향했다.

심원면 담바우 마을안에는 목공예품 생산과 판매를 하는 담바우공방이 있 다. 그곳은 숲과 바다 농업농촌의 다양 한 색깔이 묻어 있는 곳으로 숲속에 자

리 잡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원체 및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공방에 들어섰고, 선생과 학생들은 조를 이뤄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조 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으로 보인다.

정우형 기자 jwh@

부안군, 안전한 온라인 교육 협약 체결

무료 민간자격증 콘텐츠·다문화가정 TOPIK 과정 등 할인

전라북도 부안군청 평생학습팀(교육 청소년과)에서는 지난 9월 3일 지역주 민의 자기 계발 향상을 위한 자격증 온 라인 교실 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청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을 비롯한 평생교육 관계자와 한국사이버 진흥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 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부안군민 누 구나 자격증 온라인 교실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자격증 강좌를 무료로 수강 할 수 있게 됐다.

자격증 온라인 교실은 40여 종의 민 간자격증 콘텐츠가 무료(자격증 발급비 용 유료)로 운영되며 10종의 국가자격

증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TOPIK(한국 어 능력시험) 과정의 콘텐츠는 60%의 할인율로 지원돼 지역주민을 위한 참신 한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안숙 과장을 비롯해 최은철 주무 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부안군 민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한 환경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자기 계발 향상 및 지역 내 전문인력이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안군민 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가로 개 발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보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우형 기자 jwh@

즐거운 배움
· 학생 인권 보장
· 학생자치
· 안전한 환경

행정업무 경감
· 배움중심 수업 전개
· 기초학력 보장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안전한 학교
· 질 높은 학교교육
· 학부모 학교 참여
· 진로 진학 교육

마을학교 활성화
·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 작은학교(모교) 살리기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소통 원활, 강진 교육!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38명 합격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 월 4일 202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38명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117명이 필기시 험에 응시하였으며, 그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270명이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238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교육행정 203명(일반 194명, 장애 5명, 저소득층 4명), 전산 4 명, 사서 8명, 기록연구(기록관리) 2명, 공업(일반전기-일반) 1명, 시설(일반토 목-일반 1명, 건축-일반 3명) 4명, 공 업(일반기계-고졸 1명, 일반전기-고졸 1명) 2명, 시설(일반토목-고졸 1명, 건

축-고졸 2명) 3명, 운전 11명이다.

합격자의 남녀 비율은 각각 남성 34.5%, 여성 65.5%이며, 30세 이하가 81%로 나타났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9월말에 서 10월초에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신규임용 후보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잘 적응 하고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록 11월부터 1개월(공업·시설 직렬은 3개월) 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실무수 습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우형 기자 jwh@

환경재난시대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럼

박종훈 경북교육감, '미래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 대전환' 발제... 학생중심 환경교육 마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3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시대를 맞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와 미래세대인 학생 중심의 환경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공문화하고 비상선언문 실천 의지를 구체화하는 행사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무청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고,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해 질의 답변했다.

최고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교육감)은 인사말에서 "환경은 미래세대의 권리이다. 환경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여 기성세대의 책임을 확인한다"면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윤정(한국생태문명 프로젝트) 디렉터는 '학교와 사회가 함께 만드는 변화'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정(경기 송내고등학교) 교사는 '생태문명의 핵심 학교' 발제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학교 시스템이 바로 생태문명의 핵

심 학교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장인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전문가대표가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미래세대가 바라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기후 위기로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하

나라는 학생의 말이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미래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박현성(국가환경교육센터 청소년 운영위원장) 학생은 '미래세대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환경교육을 바란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후위기를 바로 알고 대응하여 청소년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미래세대의 압박함을 토로했다.

하지원(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학부모 입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교육의 과제를 풀어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교육의 대전환, 미래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센터장은 "대전환과 변혁의 과정에서 미래세대는 돌봄과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며 학생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학교 내 감염 차단 대책 마련

'학교 방역대책 전문가 협의회'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일 2층사 중회의실에서 최근 재확산 위기를 맞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학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의학적 관계 전문가, 경남도 관계자, 보건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 방역대책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만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각하고 학교 밖 감염을 통해 확진된 학생의 등교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한 학교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된 학교 방역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역대책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로 안내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판)' 방안의 보완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

고, 코로나19 담당자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논의를 통해 개선된 학교 방역 방안을 학교에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유행성 독감과 코로나19가 겹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학생에게 9월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 접종 기간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종훈교육감은 "많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학교 내 전파를 막기 위한 강화된 방역 대책과 현장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내·외에서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해건설공고 이전' 중앙투자심사 통과

경남교육청, 교육부 설득 762억 원 투입 2024년 이전 예정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김해지역 최대 현안인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이전'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4년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에 포함되었지만, 사업의 장기간 표류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김해건설공고의 교육환경을 개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

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해건설공고는 학급수 30학급, 학생수 600명, 부지면적 5만 6,508㎡, 연면적 2만 6,256㎡ 규모로 약 762억원

을 들여 현재의 구산동 부지에서 '김해시 삼계동 94-2'로 2024년 9월 이전 예정이다. 김해건설공고 이전을 위해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김해시, 김해건설공고총동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신산업 시대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 발전을 위해 교직원, 김해시, 총동문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과 우수직업계교과방문 등을 통해 학교의 원활한 이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이전에 정지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보완 등의 노력으로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김해건설공고 총동문회는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동부지역 거점 공업계열 고등학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

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김해건설공고 이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과 김해시와 총동문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로서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 특성화고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김해건설공고 이전 확정으로 그동안 이전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었던 구봉초등학교 이전 문제와 더불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남교육청, 거제시와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박종훈 교육감, 변광웅 거제시장 참석... 매년 3억원씩 투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거제시(시장 변광웅)는 4일 오후 거제시청 시청실에서 2021년 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하여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복교육지구는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학생 교육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변광웅 거제시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매년 3억원씩 대응 투자하는 등 행정·재정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21년부터 행복교육지구를 기본 2년간 추진하며,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행복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행복학교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마을학교 운영 △마을 교육공동체 조성 등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7년 김해를 시작으로, 2020년 밀양·양산·남해·진주·사천·고성·하동·함천 9개 지역으로 늘었으며, 2021년에는 거제시·창녕군·산청군이 함께 해 모두 12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WWW.에티켓통.COM
화장실문화 개선 및 여성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S2B 학교장터

에티켓통 ETIQUETTETONG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 FEMININE HYGIENE BINS

에티켓통XV-ET101은? 생리대 수거장치로 특허받은 제품 ❌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으로 폐생리대를 은나노항균봉투에 담아 은나노수거함에 처리하여 분리, 수거 할 수 있는 항균과 탈취가 되는 제품입니다.

-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 피스로 고정하기에 떨어지지 않고 옮겨 달 수 있습니다.
- 매일 수거 봉투를 갈아 끼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은나노 항균위생봉투를 사용해 항균 및 탈취가 가능한 위생제품.

항균·탈취·절수

에티켓통 특성

- 에티켓통은 은나노가 함유된 케이스와 봉투로 제작되어 항균과 탈취가 되는 제품입니다.
- 에티켓통은 하루 보관통이 분리되기에 내용물을 버리기 쉽고, 물로 세척이 용이 합니다.
- 에티켓통은 나사로 고정 되기에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화장실 리모델링시 철거 및 이동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에티켓통은 내오염성 실험과 냉열반복시험, 저온낙하시험 등에 합격된 발명 특허제품입니다.
- 에티켓통은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흉내 낸 단순 쓰레기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입니다.

안전행정부·교육부 : 학교 및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개선 공문 발송

- 안전행정부 지역공통체과 -1329 (2017.04.14)
-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관리 개선 협조 요청
- 잘못된 관습에서 이뤄지고 있는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의 휴지통을 비치하지 않을 것.
- 단,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별도 비치.
- 휴지통에 용변사물 휴지를 버림으로써 악취 및 실내 공기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화장실 휴지는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무방.

S2B 학교장터 구매방법

www.s2b.kr 접속 ▶ **물품목록창에 에티켓통이나 여성위생용품수거함 입력** ▶ **제품 및 수량 선택**

모델명	금액	S2B 학교장터 물품번호
XV-ET101(항균위생봉투 1롤 포함)	66,000원	201707016278840
항균위생봉투 (10롤 X 400매) 1BOX	44,000원	201707016278964
항균위생봉투 (30롤 X 400매) 1BOX	121,000원	201707016278948

• 은나노 항균위생봉투 1롤(400매) (설치 및 VAT 포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8호 일부개정 2017.05.08 / 시행일 2018.01.01]

제7조 3항

•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특약점 [특허 제 10-1120869호]
[디자인등록 제 30-0573670호]

"은나노가 함유된 항균과 탈취가 되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

생리대 수거장치로 특허받은 제품 : 에티 Q (주)가야지앤이 / www.에티켓통.com ☎ 02)866-8921, 055)242-8921

‘경북기계공고’ 졸업생 취업의 새 장 열다

2020학년도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모델 개발사업 선정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김중구)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2020학년도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모델 개발 사업'에 지난 3일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준비공간을 조성하며, 졸업 후 미취업자를 위해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맞춤형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온·오프라인 졸업생 지원관리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졸업이후 3년간 취업현황을 파악하고 졸업 시 구직의뢰를 하면 상담을 통해 관련분야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학생 맞춤 취업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졸업생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직무부수교육을 희망할 경우 '관련분야 자격증(기능사) 과정'개설로 졸업생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취업 만족도를 높이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경북기계공고는 이 사업으로 연간 1억 씩 최대 5년간 예산을 지원 받게 된다. 본 사업을 통해 그 동안 졸업 후 졸업생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마이스터고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학교로 학생 수가 많아 졸업 후의 추수 지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의 선정은 향후 대구 지역의 고졸 취업의 선도 관리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중구 교장은 "높은 취업률과 수준 있는 기술인력 양성으로 인정받는 경북기계공고가 2020학년도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마이스터고 11년차의 학교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거점 대표 직업계고'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기계공고는 전국 최대 규모의 마이스터고로 산업현장의 요구에 발맞춘 교육과정을 도입

하고 기업과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취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사업에 선정된 마이스터고 6개교, 특성화고 11개교, 총 17개교를 발표하였다.

그 중 강원·경상권에서는 ▲대구 경북기계공업고 ▲경북 구미전자공업고 ▲강원 원주의료고 ▲경남 창원기계공업고 ▲강원 홍천농업고 총 5개교를 선정하였다. 박지혜 기자 pjh@

대구시교육청, 감사하기·마음백신 UCC 제작 보급

코로나19대응 지역사회에 대한 응원 및 감사하는 마음 전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9월 7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공포·우울 심리를 응원·긍정·감사하는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따뜻한 삶을 함께 하는 감사하기 실천 UCC' 2종을 제작해 보급한다.

이 동영상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따뜻한 삶을 함께 하는 감사하기 실천 UCC 공모전'의 수상작을 활용해 감사하기/마음백신 2개 분야(각 3분 내외)로 제작했으며, 생활 속에서 감사하기 실천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감사하기 분야 동영상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입니다'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 속에서 감사하기를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정서를 키워갈 수 있도록 했다.

마음백신 분야 동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을 다친 대구 시민들을위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로 지친 마음을 치유해 주고자 제작되었다.

코로나19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과정 속에서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 들, 학교 선생님, 부모님께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과 불안함을 극복하도록

감사와 응원을 실천했다. 대구시교육청 김차진 미래교육과장은 "감사하기 실천은 작은 행동이지만 운동을 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가정과 학교, 대구 지역에 대해 격려와 응원, 감사하는 마음 표현을 통해 불안과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백신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뜻한 삶을 함께 하는 감사하기 실천 UCC" 동영상 2종은 대구시교육청 유튜브에 탑재해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혜 기자 pjh@

박지혜 기자 pjh@

“직업계고 공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직업계고 이해 위한 온라인 학교 설명회 운영

대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라인 플랫폼 Zoom에서 '직업계고 이해를 위한 온라인 학교 설명회'를 운영했다.

대구 소재 19개 직업계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직업계고 이해를 위한 온라인 학교 설명회'는 직업계고등학교별 홍보전담 교사가 학교 설명회와 1:1 진학 상담을 Zoom을 활용해 온라인 쌍방향으로 진행한다.

'직업계고 이해를 위한 온라인 학교 설명회'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직업을 빨리 가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2개 중학교 학생 69



명과 학부모 5명이 참가한다.

9월 2일 대구일마이스터고 학교 설명회에 참가한 학생은 "진학 상담을 통해 진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이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종환 교육장은 "학생들이 살아

갈 미래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것이다. 세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탐색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이 흥미와 관심을 가진 매력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을 꾸준히 발전시켜 우리 학생들의 미래 사회 역량 함양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지혜 기자 pjh@

‘진로잡(Job)고 줌(Zoom)인’ GO! GO!

달성교육지원청, 중학생 대상 온라인 쌍방향 진로 프로그램 실시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은 8월 29일부터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쌍방향 프로그램인 '진로잡(Job)고 줌(Zoom)인'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진로잡(Job)고 줌(Zoom)인'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을 온라인 상에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진로 탐색과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시 정보 안내와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으로 구성되며, 9월 26일(토)까지 약 1달간 총 26회에 걸쳐 실시된다.

고입 안내 특강은 고등학교 진학상담교사 10명이 강사로 나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고등학교 유형별 특징, 고등학교 생활, 자기 주도 학습법, 대학입시 정보까지 학생들의 진학 과정 전반에 대한 유익한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전문직업인 강사로는 현



직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미디어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약사, 한의사, 특허심사관 등이 참여하여, 각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 능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직업인으로서의 고충, 보람 등 개인적인 이야기도 진솔하게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학생 개개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직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힐 계획이다.

전문직업인 특강은 △8월 29일(매일경제TV 김정은 아나운서), △9월 3일(김재욱 미디어아티스트), △9월 5일(제주 한마음한의원 오지현 한의사), △9월 9일(KBS 이설아 기상캐스터), △9월 10일, 9월 12일(한국화이자제약 구예진 약사), △9월 12일(김혜리 네일 아티스트), △9월 19일(매일경제TV 왕성호 기자), △9월 26일(특허청 윤복합심사국 하정훈

특허심사관) 순서로 진행된다.

'진로잡(Job)고 줌(Zoom)인'은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주중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학생 개별로 참여하는 토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전문직업인 강사로 참여한 매일경제TV 김정은 아나운서는 "대구지역 학생들과 함께 진로 고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되었다."며 "이번 만남이 학생들의 꿈을 향한 전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성철 교육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 교육은 위축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꿈마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이번 온라인 진로 프로그램인 '진로잡(Job)고 줌(Zoom)인'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지역 학생들을 위해 참여해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달성교육지원청은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과 유익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

대구유가초 '유가 꿈자람 진로인성캠프' 운영

대구유가초등학교(교장 우오식)는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4~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 유가 꿈자람 진로인성 캠프'를 운영하였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 확립과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전제 학생을 3부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또한 등교 수업(교내 직업 체험)과 원격 수업(e-학습터)을 병행하여 등교하는 날에는 학교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직

접 참여하고, 등교하지 않는 날에도 가정에서 온라인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특히 체험 장소와 기자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학생 개인용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교내 직업 체험활동 시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했고, 개별 활동 중심 비접촉식 프로그램 위주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박지혜 기자 pjh@

연결보다 청결이 우선입니다

콘센트와 멀티탭에 쌓여있는 먼지를 방치하면
먼지를 통해 전류가 흘러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수시로 청소해주세요!

2020 전기안전 콘센트 공모전 광고부문 대상 수상작

산업통상자원부 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도교육청, 정보격차 낮추고 학습력 높이고

경북도교육청,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

정보소외계층 학생 원격수업 위한 태블릿 3,000대·노트북 205대 지원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급여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태블릿 컴퓨터 3,000대와 노트북 컴퓨터 205대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안동 소재 경안신육원과 프란치스코청소년의집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25개소와 정보소외계층 학생 2,387명에게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스마트기기는 삼성 전자·엘지전자·엘지유플러스로부터

기증받은 태블릿 컴퓨터 3,000대와 일선 학교에서 폐기하는 노후 정보화기기를 경북교육청에서 일괄 수거·처리하는 '노후 불용컴퓨터 일괄 수거 매각 사업'으로 마련된 신품 노트북 205대이다.

'노후 불용컴퓨터 일괄 수거 매각 사업'은 정보화기기의 일괄 수거로 일선 학교 업무경감과 매각을 통해 확보된 노트북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환경도 개선하게 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학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학생들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던 스마트기기 8,107대와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4,499대 등 지금까지 총 12,606대의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대어했다.

또한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인터넷 통신비 16억 원(월 1만 9,250원)을 지원했다.

그 외에도 인터넷 회선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휴대용 와이파이를 대

여하고 원격수업용 단기 인터넷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원활히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외계층의 원격수업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서 온라인 학습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학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구 기자 chg@

학부모회장 지역협의회장 협의회와 교육현안 소통·토론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 조례 제정, 학부모회 길라잡이 발간,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 지역별 학부모회장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회 활동 지원, 학부모회 의견수렴과 발전방안 논의,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지역별로 학부모회장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안동 북부메이커교육센터에서 도내 학부모회장 지역협의회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학부모회장 지역협의회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학부모회 조례,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 연수와 교육감과 지역협의회장 간 소규모 학교 학생 통학편의 지원 방안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소통·토론회를 가졌다.

아울러 이날 경상북도 학부모회장 연합회를 구성했으며, 구점범 회장(성주학부모회장 협의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3명 등 임원 6명을 선출했다.

구점범 연합회장은 "경상북도 학부모회장 지역협의회장 상호간 정보공유와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적극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부모회가 학부모의 교육참여 역할을 높이고 따뜻한 교육을 실현하는 경북교육에 건강한 교육 파트너로 같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함께 행정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최한구 기자 chg@

배려의 마음 심어 주는 우산

상주중앙초, 인문소양교육 프로젝트 '배려우산 디자인'

상주중앙초등학교는 9월 3일 6학년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배려우산을 각 반의 후배들에게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배려우산 프로젝트는 갑자기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발을 동동이던 3학년 학생의 건의를 시작으로, 전교어린이회를 거쳐 6학년이 미술시간을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각 반에 나누어주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배려우산은 비가 올 때 우산이 없는 학생이 자유롭게 사

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친구를 위해 제자리에 놓아두어 서로를 배려하며 사용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6학년 박모 학생은 "우산에 넣을 문구를 고민하고 공판화로 찍는 과정이 힘이 들었다"면서 "힘들게 만든 우산이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생각에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배려우산 프로젝트를 수업한 김은애 교사는 "배려우산은 졸업하는 6학년들이 후배에게 주는 뜻깊은 선물의 의미



가 있다"며 "학생들이 고심한 의미가 담겨 있다"며 "학생들이 고심한 의미가 담겨 있다"며 "학생들이 고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수업 소감을 밝혔다.

김민희 기자 kjh@

다양한 체험으로 즐겁게 영어 배우자

상주이안초, 5학년 학생 대상 영어체험학습 운영

상주 이안초등학교(교장 김봉수)에서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간 2020학년도 영어체험학습이 운영됐다.

상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이 영어체험학습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영어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원어민 선생님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더 생동감 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5학년 김도영 학생은 "같은 교실이지만 영어에 집중할 수 있어 색다르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영어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와 관련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아가 영어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민희 기자 kjh@

"세종도서를 읽으며 생각을 키워요"

김천은곡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교양부분 지원

은곡초등학교(교장 장준호)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에 선정돼 아동청소년 분야의 60여 권의 도서를 지원받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출판산업 육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 출판콘텐츠를 선정하고 보급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은곡초 도서관에서는 지원받은 세종도서를 학교도서관 자료로 등록하여 학생들이 대출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받은 63권의 책을 전시하여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자유롭게 세종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책 전시를 본 3학년 한 학생은 "새로운 책이 많아서 좋고, 평소에 관심 있던 책이 있어서 빨리 읽어보고 싶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민희 기자 kjh@



"이젠 공유설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경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통학버스 공동이용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일부터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차량 배차 신청·승인 업무 간소화를 위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차량 배차 방법을 'K-에듀파인 공유설비예약'을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현장학습 등 교육활동 차량을 배차할 때 기존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차량 사용 계획을 파악해 이용 가능 차량과 시간을 학교에 안내하면, 배차를 희망하는 학교에서 공문으로 교육지원청에 신청했다.

개선된 내용은 교육지원청에서 '업무포털/k-에듀파인/업무지원/공유설비예약'에 직접 통학차량을 등록하면 배차 희망교는 차량 조회 후 공유설비로 예약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승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포털/k-에듀파인/업무지원/공유설비예약'에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375대의 운영시간과 승차정원을 등록했다.

교육지원청 관내 통학버스 현황과 배차 내역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통한 통학버스 공동이용 활성화와 업무 편리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삼국 학교지원과장은 "K-에듀파인 공유설비 기능 활용으로 일선 교직원들의 업무가 감소 될 것이다"며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통학차량 보유학교에서는 적극적인 배차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한구 기자 chg@

경북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대상 온라인 노사교육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14~25일까지 2주간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노사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노사교육은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운영하는 온라인 과정으로 홈페이지(elti.koreatech.ac.kr)에 접속해 '교육청공무원 노사관계이해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전체 5차시로 노동조합의 기능, 노사관계 현황, 최근 노동 변화의 트렌드, 학교에서 노동 및 노동자 바로

보기 등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노사교육은 공무원노사관계 인식개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동·하계 방학을 이용해 실시해 왔다. 올해는 1월 3개 권역 중 2곳만 실시하고 갑자기 확산된 코로나19로 중단한 바 있다.

최규태 행정지원과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인식 개선과 교육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구 기자 chg@

학생정신건강지킴이 아이스캔

학생들의 스트레스!! 방치하면 병이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폭력, 증오로 고생하는 학생들!
집중력, 기억력향상, 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세계38개국 특허출원” - 아이스캔 슬립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힐링케어제품
시각, 청각등을 활용한 오감만족.
조용한 효과음, 뇌파, 자연음악과 편안하고 안정적인 성우의 내레이션.
과학과 감성이 함께하는 아이스캔 콘텐츠내레이션이
스트레스 및 심리적문제에 탁월한 효과!

약물부작용없이 우울증, 스트레스해소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수평안구운동과 심리요법을 과학기술로 제한한
최첨단 “아이스캔 슬립”을
사용 경험자의 한사람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세계최초 대체의약박사 고기완 원장

미국, 일본, 유럽(스위스, 독일) 수출진행 중
특허 제10-090261호

학생들의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집중력을 유지시켜 학습능률을 향상시킵니다.
과도한 긴장과 산만한 학생들의 정신집중에 도움을 줍니다.
맑은 정신과 최적의 두뇌상태를 유지, 안락한 학습을 도와줍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릴렉스시켜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DOWN
교우관계 개선
마음 힐링
과로
불면증
집중력 향상
학습능력 향상
웰빙
우울
명상
자살 예방
심신 안정
속면

심신안정, 숙면유도 명상 콘텐츠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감해소
100여가지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심리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FIND: 아이스캔 GO

“아이스캔슬립”은 청소년, 수험생들의 심신안정과 집중력 강화와 스트레스치유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이스캔슬립”은 의료가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삶 디자인하는 행복 나주교육 지향



김영일 교육장

나주는 천년 고도의 역사와 빛가람 혁신도시의 희망찬 미래가 공존하는 곳으로 나주교육은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행복나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는 존중과 나눔의 민주주의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자치를 꽃 피워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학교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소질과 개성을 살려 미래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본이 바로 선 교육, 모두를 보듬는 책임교육, 실천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교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민이 나주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나주교육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모두가 즐거운 학습환경 조성

나주교육지원청은 수업혁신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만들기 위해 첫째, 배움중심수업을 활성화하고, 학교 내 협력적 수업나눔 시스템 구축과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수업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 연구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지난 4월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 그 빛을 발했다.

학교마다 원격수업을 위한 자발적 연수가 진행됐고, 학년별·교과별 선생님들이 문체 학습 콘텐츠 및 활동 자료를 제작·보급하는 등 많은 교직원들이 집대성 발취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전용 공간인 '모들'을 지원하고 있다. '모들'은 '함께 모이다.'의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카페 등 나주 관내 공간 공유가 가능한 4곳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둘째, 나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학습심리상담사 7명을 중심으로 학습코칭단을 조직해 학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습코칭,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습자료와 보드게임 등 놀이자료가 포함된 '놀이학습꾸러미'를 제작해 가정 또는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학습부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지역민 합심

나주교육지원청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조성을 위해 징계와 처벌보다 관계회복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전담팀 운영 지원, 화해·조정 지원단 운영, 학생회 중심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예방 활동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주시청, 나주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학생 생활 안전지도 및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정서적 위기학생을 위한 기프트박스 '쓰담쓰담'을 제작해 초·중·고 50명의 학생에게 제공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그로 인한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추수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 1일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가 안정화되며 학교폭력전담팀 운영,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 계약제 교



원 채용 지원, 교육공무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및 통학차량 배차 지원 업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위학교별 추진이 어려운 업무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교육지원청은 학생중심 교육시설·설비 최적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빛가람 혁신도시 내 신·이실 학교인 도담유치원, 빛그린유치원, 매성중·고등학교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석면 교체 등 학교 안전분야 개선, 내·외부 시설 개선, 급식시설 및 체육시설 현대화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역 특성 살린 교육 시스템 구축

나주교육지원청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먼저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각자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돕고 있다.

또, 원·신도심 간 협력과 공존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 비율이 40%에 이르고 있는 만큼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학교 교육실명회' 등을 개최해 작은학교·원도심학교 교육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와 읍·동지역 학생들의 통학이 용이하도록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일부 지역에는 택시 등을 이용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 통학 지원 노력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나주교육참여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나주교육 발전 방안 및 교육정책 추진에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찾아가는 경청올레와 나주시장과 함께 하는 동행 경청올레를 통해 교육 현안문제 해결에 보다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지원센터 활성화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나주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서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AI·SW선도교육지구를 위한 민·관·학 상호 협력,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해 지역교육발전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도약을 약속했다.

■ 나주교육 발전 위한 4가지 역점과제 추진

나주교육지원청은 학교자치 활성화, 나주혁신교육지구 운영 내실화, 창의·융합 SW교육 강화, 목사고를 나주 역사·문화 자량 등 4개의 역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만들기 위해 노력 자존감 갖고 스스로 꿈과 희망 키우는 학생 양성 학부모와 지역민·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첫 번째 과제인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교 학생회 및 나주학생연합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각 주체별 활동 예산 확보 및 충분한 협의 시간 보장, 조직문화 개선 및 민주적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추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어가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나주혁신교육지구 운영 내실화'이다.

학교 혁신 전면을 위해 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 11교, 지원청 지정 자율혁신학교 9교를 비롯한 목사고를 나주행복마을학교 17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마을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둔 학교와 마을(지역)이 교육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체득

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어려움 상황에서도 권역별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과제는 '창의·융합 SW교육 강화'이다. 나주에는 전남창의융합교육원, 수학체험센터, 나주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와 함께 한국전력, 한전KDN,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있어 SW교육 관련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

최근 온라인 개학과 함께 교원들의 원격수업 및 AI·SW교육 역량 강화가 중요해진 만큼, 다양한 연수 기회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나주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창의·융합 SW교육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SW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되고 있다.

끝으로 '목사고를 나주 역사·문화 자량'이다. 나주는 천년고도, 호남의병의 중심, 학생독립운동 지원지로 역사·문화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나주 학생들이 나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나주와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이다.

나주시청을 비롯한 국립나주박물관, 나주문화원, 나주향교, 복암리교분전사관 등 지역 내 여러 기관(단체)과 협력해 나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환경 및 문화·예술교육, 감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길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면서 답답한 생활을 잘 견뎌 준 학생들과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자료와 콘텐츠를 개발해 가며 침착하게 수업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들, 학습꾸러미, 놀이꾸러미, 정서 지원을 위한 '쓰담쓰담'꾸러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외 "2020년 나주교육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서 함께 하는 교육을 지향하며,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자신의 소질과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나주교육의 시작과 끝은 모두 아이들에게 향해있어야 한다. 꿈과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교실, 배움과 성장과 나눔이 있는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장은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과 나주시청을 포함한 유관 기관 단체들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기에, 전남교육의 중심지로서 나주교육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전남 혁신교육의 모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포부를 가져본다"며 "나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공동체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